

III. 산업혁명의 재현

송승철 · 윤혜준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혁명의 혁명성에 대한 경제사적 논의와 그 논의의 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아동노동과 공장제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동노동문제는 산업사회의 부정적인 폐해에 대한 대중적 우려를 불러내어 산업조직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나아가 20세기 복지국가로의 발전방향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있기까지 산업혁명에 대한 감각적 인식의 차원에서 산업혁명은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의 붕괴나 파괴에 대한 우려와 급진적 사회변화에 대한 공포를 상징했다. 체계적인 담론의 차원에서의 산업혁명에 대한 옹호나 비판에 선행해서 산업혁명의 감각적 재현을 살펴봐야 하는 것은 감각적 재현에서의 일정한 편향이나 태도가 제도적 변화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상사의 맥으로 굳어진 일련의 담론들의 원류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논의의 편의상, 또한 재현의 담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각적·청각적 재현보다는 문학, 즉 언어적

산업사적의
감각

재현을 주된 검토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1. 증기기관과 철도

본격적인 산업화와 이에 따른 도시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18세기에는 영국인의 대부분이 시골에서 살았다. 물론, 18세기에 도 괄목할 만한 과학적·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가시적 물리적 환경도 이미 변화를 겪고 있었다. 특히, 18세기에는 종획운동(Enclosure)으로 인한 농지의 전환, 공유지의 철폐 등과 함께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개량, 대규모 관개 및 배수 시설의 확장, 도로건설 등이 이미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인이 과학적·기술적 발전의 결과를 피부로 감지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가 본격화된 18세기 말 이후였고, 특히 19세기 초 증기기관의 등장 이후 철도의 보편화는 당대인에게 역사의 변화를 추상적 경험에서 구체적 실체로 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철도는 16세기부터 주로 탄광에서 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근대적 의미의 철도가 출현한 것은 본격적으로 1804년 증기기관차의 등장 이후의 일이다. 1820년대에 오면 운송용으로 경제성과 실용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1825년 10월에는 스톡톤 달링턴 철도회사(The Stockton and Darlington Railway) 소속 기관차가 처음으로 승객과 화물을 적재하고 철도 위를 32km 달렸다. 1830년에는 조지 스티븐슨(George Stephenson)이 개량한 증기기관(‘로켓’)을 장착해 효율성을 높인 기관차가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를 왕복함을 시발로 영국 전역에 철도건설 열풍이

불기 시작하여 1841년에는 약 2,400km의 레일이 전국적으로 부설되었다. 1840년대에는 “철도광풍”(railroad mania)이라 명명될 만큼 전국적 투기열풍이 일어났으며, 그 이후에도 철도는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 분야가 되었다. 철도의 총연장은 1860년대는 13,000km로, 19세기가 끝날 때에는 전국적으로 약 27,000km가 확장되었다. 철도 위로 질주하는 증기기관이 당대의 영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물론 정치경제학적으로 막대한 것이었다. 값싼 수송수단의 출현은 도시의 인구유입을 원활하게 해서 거대도시의 출현을 촉발하였으며, 지리적 제약을 벗어나 전국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을 수 있어 공업 및 상업의 비약적 확대를 가져왔고, 동시에 런던의 신문이 전국으로 배달되는 등 정보 및 통신의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1848년 차티스트운동과 같은 대규모 시위는 이와 같은 수송, 통신, 정보의 확대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속도감과 풍경의 발전

그런데, 증기기관과 철도의 중요성은 이와 같은 정치적 혹은 실물경제적 의미를 훨씬 넘는 것이었다. 육중한 증기기관차가 검은 연기를 푹푹 내뿜으며 초원을 가로질러 빠른 속도로 달리는 풍경은 가시적 이미지로도 당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새커리(Thackeray)가 “철도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해 주고 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속하면서 동시에 과거에 속한다”고 지적했듯이 철도는 산업화 이후의 시대적 변화와 속도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므로, 빅토리아조 영국인들에게 철도가 도시를 공간적으로 이분하며 질주하듯이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분하는 이미지로 인각되며, 철도에 대한 묘사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적 태도표

명이기도 했다.

철도와 증기기관이 가진 흡인력과 거부감은 이미 낭만주의 작품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난다.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낭만주의 문학은 전자에 대해서는 치열한 대응을 하였으나 산업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도시화 및 기술적 발전 등의 당대적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낭만주의 시인들이 현실정치에서 실망하고 자연 속에 내재하는 초월적 존재양식으로 관심을 돌렸을 때, 도시나 증기기관 등을 자연의 초월성과 평온함을 파괴하는 추상적 합리주의의 등가물로 인식하였다. 워즈워드(Wordsworth)는 도시를 시골과 대비시켜 정상적인 주거공간으로 보기를 거부했다. 예를 들면, 워즈워드의 쏘네트 「1802년 10월에 쓴 쏘네트」(Written in London, September, 1802)의 첫 구절을 보라.

오, 친구여 어디를 보아야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네, 이렇게 짓눌려서야. 생각하니
우리의 삶은 단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 화려하게 치장했을 뿐,
사실은 장인이나, 요리사, 혹은 마부가 만든 값싼 제품이라네!

이처럼 워즈워드에게 런던은 오직 혼란, 경박, 오염, 소란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워즈워드가 1835년에 쓴 「증기선, 수로, 그리고 철도」(Steamboats, Viaducts, and Railways)에서 근대기술문명은 인간 지식의 '합법적 자손' 이므로 자연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읽게 되는 것은 언뜻 보면 놀라운 일이

다. 그러나 워즈워드의 쏘네트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늙은 시인의 정서, 이것들은 물과 땅의 운송수단과 어울리지 않구나, 이것들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시인들은 너희들을 잘못 판단하지 않으리라!
너의 존재가, 비록 사랑스런 자연을 크게 훼손한들,
미래의 변화를 예감하는 시인의 마음에는
결코 장애가 되지 않으리 ……

즉, 근대기술문명의 도래를 변화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때도, 그것은 진보에 대한 들뜬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찻찻한 심정이 주조음으로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다.

철도 위를 질주하는 증기기관이 가진 시대적 힘과 속도감에 대한 매혹과 불안감은 1844년 낭만주의 화가 터너(Joseph Turner)가 그린 「비, 증기, 그리고 속도」(Rain, Steam, and Speed)에도 포착되어 있다. 여기서 증기기관차는 안개가 낀 듯한 몽롱한 배경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바로 옆으로 흐르는 강 위에는 마치 지난 시대의 상징인 듯 나룻배 한 척이 무심하게 떠 있다. 기차가 사납게 몰아치는 폭풍우를 뚫고 맹렬한 속도로 관객을 향해 앞으로 돌진해 오는 느낌이 들도록 박진감 있게 배치된 구도는 당시로서는 아주 새로운 수법이었다. 그러나 낭만주의자들이 증기기관과 기차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어느 정도 우호적 감정을 가진 것은 그들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려 노력했다는 점에만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낭만주의자들은 기선이나 기차를 운송수단으로서의 삶의 구체적 실체로 등장시킨 것은 아니었다. 워즈워드의 시에서 화자는 결코 기

차를 밀착된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세대가 아니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풍경의 멀리 떨어진 한쪽 모서리에 진보의 증거로서 배치시켜 놓고서야 안정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터너의 회화에서 기차는 훨씬 낭만주의적 박진감과 활력을 지닌 모습으로 이쪽 관객의 삶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차는 배경으로 제시된 거친 자연풍경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마치 기차는 자연이 원래부터 지니고 있는 광포한 특징을 육화한 자연의 일부로 편입된 것처럼.

낭만주의자들에 비해 빅토리아조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바로 철도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시대에 속한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빅토리아 중기에 오면 교외에 살면서 런던으로 기차를 타고 출근하는 일이 일상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등 기차여행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낭만주의자와는 달리 파노라마적 야외풍경 속에서가 아니라 번잡한 도시의 스케치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복합적인 이미지로 등장한다. 아마, 구스타프 도레(Gustave Doré)의 「러드게이트 언덕」(Ludgate Hill)은 기차에 관한 시각적 반응 중 가장 유명한 예에 속하는 것일 것이다. 이 스케치에서 철도용 구름다리는 화면을 수평으로 이분하고 있는데, 다리 밑으로는 수많은 마차, 행인들, 행상들이 서로 뒤섞여 질주하고 있으며, 다리 위로는 평온한 풍경 속에 저멀리 르네상스 양식의 세인트 폴(St. Paul) 대성당의 우아한 돔이 은은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화폭은 흡사 단테(Dante)의 작품에 나오는 지옥과 천국을 연상시키는 아비규환과 정온함의 대립으로 이분되는데, 화면을 지옥과 천국으로 이분하는 다리 위로 증기기관차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변

화의 속도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 스케치는 아놀드(Matthew Arnold)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아래쪽은 속도에 취한 당대의 “구역질나는 성급함”의 정서이고, 이에 비해 위쪽은 자본주의적 분업이 도래하기 이전 인간다움이 보장된 사회라고 믿었던 빅토리아 인들이 동경한 중세에 대한 향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시공이치 속도감의 가치.**

그러므로, 많은 빅토리아인에게 기차의 등장과 함께 사라진 마차(coach)가 지난 시대의 표상이자 심지어 변화의 부담에서 벗어난 유희자적과 유머의 상징으로 기차와 대비된다. 디킨즈의 작품 가운데 가장 한가롭고 여유가 있는 『픽윅 문서』(Pickwick Papers)가 작중인물들이 마차를 타고 여행하는 피카레스크 구성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Wheeler p. 24), 부유한 런던의 사업가의 공적 생활을 다루고 있는 『돔비 부자 상사』(Dombey and Son)에서는 도시의 빈민가와 기차의 전진이 서로 교차하는 풍경이 연출된다. **Image 이미의 가치병여 방식.**

그 당시에 세상을 뒤흔든 거대한 지진의 첫번째 충격은 그 지역을 온통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 과정의 흔적은 사방에서 볼 수 있었다. 집들은 허물어지고, 거리는 무너지고 막혀 버렸다. 땅이 패어 깊은 구덩이와 도랑이 생겨났고 엄청난 흙과 진흙덩이가 솟구쳐올랐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건물들을 목재로 받쳐 놓았다. 한쪽에 뒤집혀진 수레들이 뒤엎겨진 상태로 부자연스런 언덕의 발부리에 혼란스럽게 놓여 있었으며, 어떤 곳에는 귀한 쇳덩어리가 엉켜서 마침 연못으로 변해 버린 곳에 빠져 녹슬고 있었다. 다리는 곳곳에 있었지만 지나갈 수 없었으며, 넓은 대로도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었다. 바벨탑 같은 굴뚝은 반쯤 꺾여 있었고, 임시

로 지은 나무 막사와 집들이 전혀 있을 곳 같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 한마디로,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리고 아직 개통되지도 않은 철도부설이 지금 진행중인 것이다. 그리고 그 철도는 이 엄청난 혼란의 한가운데로부터 그 강력한 문명과 진보의 길 위로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다.

(p.121)

주로 진보의 이름 아래 기차가 몰고오는 엄청난 혼란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기차가 가져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흥분의 질감이 스타카토처럼 짧고 힘차게 반복되는 풍경변화에 대한 세심한 디킨즈 특유의 묘사 자체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19세기 초의 시골풍경을 목가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개스켈(Elizabeth Gaskell)의 『크랜포드』(Cranford)에서도 기차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핵심적 비유로 사용된다. 크랜포드의 삶은 도덕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그 나름의 우아하고 절도있는 규범과 질서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산업화와 함께 진행되는 철도의 시대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여기서 과거와 다가오는 미래는 각각 사무엘 존슨의 문체가 가장 우아하다고 생각하는 ‘인습적인’ 마틸다 젠킨스와 디킨즈를 좋아하는 브라운 대위로 대비된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고 작중 인물 가운데 가장 양반다운 브라운 대위가 디킨즈의 대중소설인 『픽워 문서』를 읽다가 기차에 깔려 참변을 당하는 역설적 구성은 결국 당대인 모두가 가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역으로 표현해 준다. 그러나 브라운 대위의 참변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소설의 끝부분에서

저 멀리서 기차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올 때 마침내 마틸다는 변화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자신의 위치를 조정한다.

브라운 대위의 참변은 전혀 가공적 사건만은 아니었다. 1830년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 철도가 놓이고 스티븐슨의 개량 증기기관차가 시운전을 하는 날에 식장에 참석 한 웰링턴 공작은 허스키슨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달려오는 기차에 허스키슨 씨가 깔려 죽는 참변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이 식장에는 정부 대표로 로버트 필(Robert Peel) 경도 참석하였는데, 웰링턴 공작과 로버트 필 경은 이 사건 때문에 심정적으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날의 행사에는 끝까지 참석하고 런던으로 돌아갔다. 빅토리아 시대 자수성가한 신화적 인물인 새뮤얼 스마일즈(Samuel Smiles)는 이 ‘국가적 행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불행한 사건은 그날의 나머지 일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웰링턴 공작과 로버트 필 경은 「기관차」행렬을 돌려 리버풀로 돌아갔으면 하였다. 그러나 맨체스터에 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기 위해 엄청난 수의 군중들이 몰려있으며, 만일 두 사람이 [맨체스터까지의] 여행을 끝내지 않으면 아마 사고가 과장되어 보도될 것이며,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잘못 전달되면 철도여행의 미래와 회사의 자산가치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말이 두 사람에게 전해졌다. 따라서 일행은 다른 모든 흥겨운 행사에는 더 이상 참석하지 않고 가자마자 돌아간다는 조건하에 맨체스터까지 함께 가기로 동의했다.

(Haight, p. 548에서 재인용)

계속해서 스마일즈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러나, 철도의 개통은 완료되었다.

2. 공장도시

동시대인들에게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가장 총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은 “공장도시(factory town)”들이었다. 영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런던 등의 전통적 도시들이 인간과 물질의 교류의 중심지였던 역사는 유구하다. 이들이 다양한 교역의 중심지였던 만큼 상업, 교육, 행정 등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골고루 충족시켜야 했다. 반면에 공장도시들이란 대규모 상품 제조업 중심으로 형성된 맨체스터 등의 신흥도시들이란 점에서 특이했다. 물론 옥스포드 등의 대학도시나 리버풀 등의 항만도시와 같이 한 가지 기능이 도시의 성격을 규정한 선례들은 있으나 산업자본에 의해 고용된 인간군상과 그들의 노동을 흡수하는 대규모 기계설비들이 만들어 내는 공장도시의 독특한 풍경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증기기관과 철도 등의 새로운 기계적 발견들이 산업혁명의 혁명적인 새로움을 집약한 상징물들이었다면, 산업도시는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의 총체적 변화의 공간적 표현이었다.

산업혁명이라 지칭되는 산업자본주의의 역동적인 태동 및 발전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입장은, 후대 역사의 시점에서 그 발전의 모습을 총괄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현대의 사가들과는 달리, 불가피하게 당파적일 수밖에 없었다. 산업자본주의 발전의

직접적인 수혜자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에게 공장도시의 검은 연기는, 1970년대에 산업화 추진에 정신이 없었던 분단된 한반도 남쪽에서 그러했듯이, 바로 돈벌이와 경제발전의 감각적인 상징이었다. 하지만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나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한 관망자들에게 검은 연기에 휩싸인 공장도시들은 비인간적이고 비자연적인 재난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다.

공장과 공장도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그 자신이 동판 삽화가라는 수공업적인 기술의 소지자였던 블레이크(Blake)의 장시 『밀튼』(Milton)에 나오는 “어두운 악마적 공장”(Blake 1971, p. 489)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잘 요약해 준다. 공장의 악마성을 블레이크는 그가 꿈꾸는 “예루살렘”이라는 이상적인 상황과 극단적 대조를 이루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굳이 신학적 내지는 신화적 틀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것이 전통적 자연의 풍경과 거기에 담긴 ‘자연스런’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었다.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 정치적 혁명이 극에 다다랐던 1792년, 토링턴(Torrington)이라는 한 보수적 귀족에게 공장도시는 악마적 도전의 시각적인 상징으로 보였다 — “울려대는 종소리와 공장의 소란소리가 계곡을 온통 휘저어 놓았다. 모반과 평등체제에 대한 설들이 무성하고 폭동이 임박한 것 같다”(Thompson 1963, p. 189).

자연에 대한 반역을 즉시 기존의 사회체제에 대한 모반으로 연결시키는 산업혁명에 대한 보수적 해석은 제2차 선거법 개정을 한 해 앞 둔 1866년에 출판된 조지 엘리엇(George Eliot)의 소설, 『필릭스 홀트』(Felix Holt, 1866)에서 마차를 타고 밖을 내

다보는 여행객의 시각에서 35년 전 영국의 풍경을 파노라마로 제시하는 작품의 첫장에서 다시 발견된다. 보다 한적했던 삶이 가능하던 시절의 시골풍경과 삶의 모습을 개관하는 이 소설의 맥락 속에 공장도시 하나가 불가피하게 불쑥 나타났다가 다음과 같은 평과 함께 금새 사라진다. “석탄 먼지로 거무튀튀해지고 베틀 흔들리는 소리로 시끄러운 마을을 내려다본 후 그는 온통 밭과 높은 울타리와 바퀴자국 깊이 나 있는 길로 되어 있는 교구 주변을 지나갔을 법하다. 그리고 폭동과 노동조합 회의의 무대인 한 공장도시의 포장도로를 덜컥대며 지나간 후에, 한 심분을 더 가면 마차가 그를 한 농경지대로 데려다 놓을 것이다”(Eliot 1972, p. 77).

토링턴의 “모반과 평등체제”는 엘리엇에 있어서 “폭동과 노동조합 회의”로 보다 구체화돼 있지만 두 경우 모두 공장도시를 자연에 대조시키며, 또한 멀찍이 떨어진 거리에서 대상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의적으로 축약시켜 놓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이와 유사하게, 산업혁명의 중심지의 하나였던 스코틀랜드 서남부 지방의 어느 교구목사가 1760에서 1810년까지 쓴 자전적 연대기의 형태로 꾸민 존 골트(John Galt)의 소설 『교구 연대기』(*Annals of the Parish*, 1821)의 케이엔빌(Cayenneville)이라는 공장도시가 생긴 1788년 항목에서 서술자는 한편으로 “사람들의 정신이 새로운 사업으로 흥분되었고, 말하자면 새로운 정령이 이 땅으로 내려온 듯”한 쇄신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이처럼 온통 장사하고 물건 만들어대는 와중에도 나는 우리의 농촌식 생활의 친숙한 소박함이 쇠퇴하는 징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의 우려의 첫번째 내용은, 케이엔

빌의 공장노동자들 중에 “만족할 줄 모르고 야심적인 정신들이 있어서, 같이 모임을 만들고는 런던 신문물 [선술집] 크로스 키로 갖고 와서는 매일 밤 만나서 프랑스의 형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곤 했던 것”(p. 118)이다. 이처럼 보수적 시각에 비친 산업도시의 전형적 모습은 정치사회적 혁명에 대한 불안으로 일찍이 채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장도시의 반역과 봉기와 노동운동의 장소이기 이전에 지리하고 반복적인 노동규율에 지배받는 거대한 공장들과, 그 주위에 널려 있는 피폐한 노동자들의 거주지역으로 양분되는 단순화된 사회공간이었다. 흔히 『청서(靑書)』(*Blue Books*)라고 불리는 의회보고서의 일종이면서도 하나의 대중적인 저술로 널리 읽혔던 채드윅의 『대브리튼의 노동인구의 위생 상태에 대한 보고』(*Report on the Sanitary Condition of the Labouring Population of Great Britain*, 1843)에 수록된 여러 조사자들의 보고는 공장도시의 생활공간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중의 하나를 인용해 보자.

더럼(Durham) 시는 다른 오래된 도시나 읍내처럼 매우 불규칙하게 건설돼 있고, 사면이 웨어 강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강은 자주 범람하고 거기엔 숲이 깊게 우거져 있다. 이 숲은 여름과 가을에는 열기, 습기, 그리고 부패하는 식물물질들의 영향이 결합하여 말라리아의 풍부한 원천이 된다. 이 곳의 길거리는 매우 좁고 집들이 얼마나 서로 뒤에 바싹 붙여 지어졌던지, 많은 경우 거처들로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 통로이거나 골목 뒷길로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하는데, 거기마다 적합한 정화기나 하수구가 없는 관계로 오물이 축적되도록 방치돼 있어서 필연적으로 인분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산된다. 대부분의 집들은 매우 오래됐고 파손된 상태이고, 어떤 것들은 기후에 대한 방어조차 안 된다. 노동자 계급들의 대중은 이런 셋방들에 거주하는데, 그들은 방 두개 이상을 차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로 단칸방에 살면서 거기서 청결과 안락함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Chadwick 1843, p. 94)

채드윅이 보고하는 더럽의 모습은 소박한 농촌의 생활양식의 쇠퇴라기보다는 오래된 도시의 모순점들이 새로운 질서로 인해 더 악화된 경우이다. 그러나 애초에 이 도시가 생긴 이유와 그것이 산업도시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똑같이 그곳 가까이에 강이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연의 조건을 산업자본주의는 더욱 더 강력하게 이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생명력 자체를 변질시킨다. 이런 연유에서 산업혁명이 품고 있는 기존 사회질서의 전복의 가능성에 대한 중산층 지식인의 두려움은 유기적 자연의 질서파괴에 대한 두려움과 맞물려 있게 된다. 산업혁명의 가장 가시적인 결과는, 적어도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자연의 유기적인 순환에서 차단된 지극히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자들의 생활공간과, 부의 축적의 그늘에 축적되는 오물일 뿐이다. 연이어서 보고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덧붙인다. “개량의 정신이 …… 여기에는 매우 결핍돼 있다. 근로계급들의 거주지에 있어서 실행될 수 있는 개량과 그로 인해 그들의 건강과 안락과 행복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일보다 임명된 당국자들의 주의를 더 큰소리로 끄는 것은 없을 것이다.”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제2의 자연’은 보다 계획적인 인위적 개량에 의해 치유되리라는 채드윅의 생각이 온갖 ‘당국자들’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가득찬 오

늘날에도 쉽게 폐기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와 개량의 정신이 함축한 합리성의 성격이다.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이끄는 합리적 개량의 정신이 노동자들이 장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 내의 기계들에는 넘쳐 흐를지는 몰라도 같은 노동자들의 생활환경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 모순적 합리성은 대표적인 공장도시인 맨체스터에 대한 프랑스의 보수적 논객 토크빌(Tocqueville)의 다음과 같은 단평이 잘 표현하고 있다. “이 불결한 하수구에서 지극히 막대한 인간 근로의 물줄기가 흘러나와서 전세계를 비옥하게 한다. 이 더러운 하수구에서 순금이 흘러나온다. 여기서 인간은 가장 완벽한 발전 상태와 가장 야만적인 상태에 이른다. 여기서 문명은 기적을 이루나 문명은 거의 야만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Marcus 1974, p. 66에서 재인용). “순금”이 흘러나온다는 맨체스터의 “더러운 하수구”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은 같은 도시에 대한 엥겔스(Engels)의 묘사가 보여준다.

어디를 가도 반쯤 아니면 전부 무너진 건물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에는 실제로 사람이 살지를 않는다 …… 이 집들에서 나무나 돌 바닥은 거의 볼 수가 없고, 거의 한결같이 깨지고 잘 맞지 않는 창문과 문짝, 그리고 그 불결함의 경지라니! 어디를 가도 파편과 폐물과 음식 찌꺼기 더미들이 어떤 경지에서든 개명한 인간이 이러한 동네에서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어디를 가도 문 앞에 쓰레기와 찌꺼기가 있어서, 그 밑에 깔린 포장길이 어떤 종류인지 볼 수가 없고 다만 여기저기 발로 느껴 볼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 실제로 현대사회의 이 천민노예들의 거처가 여기저기 주위에 널려 있는 돼지우리들보다 더 깨끗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탓

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Engels 1973, pp. 82-83)

산업자본주의의 엄청난 생산력이 산업노동자들의 거주지 한복판의 오물더미의 엄청난 생산으로 귀착된다. “인간 근로의 물줄기”의 부산물들이 거대한 “하수구”를 이룬 맨체스터 시 한복판의 돼지우리가 상징하는바, 산업혁명이 근대로의 진보임과 동시에 야만으로의 퇴보라는 이 이중적 모습은 19세기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중적 사회 소설가인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의 손에서 보다 감각적으로 형상화된다. 디킨즈는 그의 『어려운 시절』(*Hard Times*, 1854)의 배경이 되는 가상의 공장도시, 코크타운(Coketown)을 이렇게 소개한다.

그곳은 붉은 벽돌, 아니 연기와 재가 그렇게 되도록 허락했다면 붉은 색이었을 벽돌들의 도시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 도시는 자연스럽지 않은 붉고 검은 색인 것이 마치 야만인의 색칠한 얼굴 같았다. 그곳은 기계와 높다란 굴뚝의 도시였으니 거기서 끝이 안 보이는 뱀 같은 연기가 끝없이 꼬리를 물고 나와서 절대로 사리를 풀지 않았다. 거기엔 검은 운하가 있었고 고약한 냄새 나는 염료로 보라색이 되어 흐르는 강이 있었고, 큼직한 산더미를 이룬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창문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안에서 하루종일 덜컹거리는 소리와 부르르 떨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안에서 증기기관의 피스틴이 단조롭게 위아래로, 마치 우울한 광기 상태의 코끼리의 머리처럼 작동했다.

(Dickens 1990, p. 22)

공장도시의 검붉은 색의 단조로움에 대한 묘사가 아프리카 야

만인의 얼굴에 비유되고, 증기기관의 작동이 “우울한 광기”에 사로잡힌 코끼리의 반복적인 머리운동으로 변신하는 과정의 근저에는 분명히 토크빌이 간파한 산업혁명의 야만성에 대한 느낌이 깔려 있다. 다만 이 야만은, 아프리카의 원시적 야만과는 달리, 비자연적이고 자연파괴적인 야만, 즉 강물은 그 원래 색조를 잃고 하늘은 검은 연기에 가려져 있는 기계문명 교유의 야만 상태이다.

이상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공장도시의 재현은 그것을 자연과의 대조,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 하나의 비자연적인 새로운 자연으로 비유하는 형식을 취한다. 마치 새로운 기계문명의 힘으로 창조되는 제2의 자연을 인간 언어의 힘으로 다시 자연화시키려는 듯이, 관찰자들은 맨체스터의 돼지나 코크타운의 코끼리 이미지 등을 통해서 공장도시의 기계적 근대성이 배제하거나 억압하려는 원초적 자연을 다시 불러내려는 충동을 드러낸다. 이렇게 해서 언어적 재현은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동시에 비유적 변형을 통해서 현상의 처절함을 왜곡할 수도 있다. 예컨대 디킨즈와 비교할 때, 직접 맨체스터에 살았던 만큼 상대적으로 산업도시에 보다 더 호의적인 편인 엘리자베스 개스켈(Elizabeth Gaskell)의 산업소설, 『북과 남』(*North and South*, 1854~55)의 여주인공의 눈에 비친 가상의 공장도시 밀튼노던(Milton-Northern)의 재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전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길고 곧바르고 규칙적으로 지어논 집들이 늘어선 희망 없는 길을 따라 재빨리 지나갔다. 여기저기 창문이 많은 공장들이 거대한 직사각형으로 우뚝 서서, 마치 병아리들 가운데 있는 암탉처럼 우리의 검은 ‘비의회적’ 연기를 뿜어 대고 있었

으니, 이것은 마가렛이 비를 예고한다고 생각했던 구름이 어디 서 나왔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었던 것이다”(Gaskell 1970b, p. 96). 미친 코끼리나 울긋불긋 화장을 한 야만인보다 알 대신 검은 연기를 낳는 암탉의 비유는 훨씬 더 친근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연상시키면서 자본축적에 대한 정당화를 해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반면에 개스켈 부인의 공장 연기가 비구름으로 비유되는 두번째 비유에서 유기적 자연에 공장도시를 대조시키지만, 토링턴이 우려한 “모반과 평등체제에 대한 설들”과 폭동에 대한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점은 그녀의 사회개혁에 대한 보다 개방적 태도의 반영일 수도 있겠다.

물론 이러한 유기적인 자연과의 비유적 대조가 공장도시 재현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어려운 시절』의 작가의 첫 장편 『픽 워 문서』는 1832년 1차 선거법 개정이 열어 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낙천적 자신감이 당시 중산층들간에 채 가지지 않은 1836~37년에 걸쳐 쓴 것으로, 여기에 나오는 “위대한 일하는 도시 버밍엄”에 대한 묘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이 소란의 한가운데로 이어지는 좁은 도로를 달그락거리며 지나칠 때 열심히 일에 몰두하는 모습과 소리들이 감각에 더욱 강하게 와 닿았다. 길거리는 일하는 사람들로 메어졌다. 집집마다 노동의 콧노래가 울려 나왔고 맨 윗층 다락방의 길죽한 여단이 창문에서 빛이 어렴풋이 흘러나왔고 바퀴 돌아가는 소리와 기계소리가 떨리는 벽들을 뒤흔들었다. 도시의 거대한 작업장과 공장들에서 불길의 사납게 타올랐으니 몇 마일씩 떨어진 데서도 그 무시무시하고 음침한 빛을 볼 수 있었다. 망치소리와 증기가 쇠도하는 소리 그리고 엔진의 둔탁하고 목직할 듯한 소리는 사방에서 울려나오는 거

친 음악이었다.

(Dickens 1972, p. 801)

이 고무적인 묘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시각적인 비유들과 달리 힘찬 “노동의 콧노래”와 “거친 음악” 등의 청각적인 비유들이 주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비유는 공장도시가 암울한 공간 속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효과를 주고, 일종의 묘한 화음을 이루는 망치 소리와 증기기관의 소리 속에 노동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의 반영이다. 이때도 수공업적인 이미지인 “집집마다” 흘러나오는 “노동의 콧노래”처럼 일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일을 시키는 기계들의 음악은 “거친 음악”이요 그만큼 듣는 이를 위협한다. 여기에 다 강력한 시각적 재현인 사납게 타오르는 불길의 여전히 “무시 무시하고 음침한 빛”을 첨가한다면 결국 인용한 대목의 묘사는 공장도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의 어려움을 말해 주는 셈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묘사들은 그 재현의 내용 못지않게 그 재현의 시각과 입장을 드러내 준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 시각들의 차이는 한편으로는 대상과의 단순한 거리의 차이에서 야기된다. 조지 엘리엇의 마차에서 본 공장도시의 간략한 모습과 채드윅이 인용한 보고서나 앵겔스의 직접적인 조사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모습의 차이, 그리고 디킨스의 소설들간의 차이나 디킨스와 개스켈 부인의 차이는 공장도시라는 대상에 어느 정도로 가까이 가서 얼마만큼 그 자세한 모습을 잡아내는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공장도시에 살고 그 속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보다 더 정확한 묘사를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그 내부에 깊숙히 들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일정한 이해관계가 만들어 내는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일정한 비판적 조명의 거리에서만 대상의 핵심적 특징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도시라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새로운 대상을 이미 친숙한 다른 대상에 연결시켜 형상화하는 데 어떤 비유를 쓸 것인가라는 시문학적인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기도 하다. 이 경우 사실이 정확히 어떠한가라는 인식의 문제는 사실의 어떤 면을 어떤 식으로 부각시키는가 하는 재현기법의 문제로 전환된다. 이 경우 우리는 재현의 조작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서만 재현의 대상에 대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재현에서의 비유의 문제는 공장도시의 다수 거주자들인 노동자들에 대한 묘사에서 더욱 핵심적으로 부각된다. 다른 어떤 소설이나 비소설 보고서만큼이나 산업화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인 디즈레일리(Disraeli)의 『시블, 또는 두 개의 국민』(*Sybil or The Two Nations*, 1845)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노동자들에 대한 묘사를 보자.

그 때는 토요일 밤이었다. 길거리는 사람들로 가득찼다. 굴다리 밑으로 난 좁은 길들이 마치 벌집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았고 열마나 낮았던지 들어가려면 몸을 숙여야 했는데, 그런 길을 통해서 큰 길과 지속적으로 왕래를 하는 막힌 길목과 유해한 막다른 골목들에서 무한한 인파가 벌떼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동안, 어둡고 음침한 거처들에서 좁다랗게 이어진 층계로 같은 길로 다락방에

사는 땅밑의 백성들이 여름 밤의 시원한 공기를 즐기러 올라왔고 안식일을 위한 장을 보러 쏟아져 나왔다.

(Disraeli 1981, pp. 85-86)

작가는 노동자들을 개별화되지 않은 군중으로 묘사하면서, 그 부정형적 집단성을 발판으로 삼아 그들을 벌떼로 변신시킨다. 그리고 이 날벌레 이미지에 대조되는 “다락방에 사는 땅밑의 백성들”이라는, 마치 두더지들을 연상시키는 비유가 이 변신을 완결시킨다. 이러한 비유에 의한 변형을 위해서는 대상들과 비교해서 보는 이의 위치가, 인간과 미물들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현격히 월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유적 거리에 근거한 디즈레일리의 사회개혁적 미학은 한편으로는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겠으나, 다른 한편 사회적 현실을 감각적으로 수용하기 알맞게 축소시키는 효과도 명백히 수반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펜을 잡고 대상을 그리는 작가의 눈에 노동자 대중은 심지어 유기적인 생물체가 아닌 하수구의 쓰레기와 동일시되기까지 한다. 엘리자베드 배릿 브라우닝(Elizabeth Barrett Browning)의 장시 『오로라 리』(*Aurora Leigh*, 1850)에서 시인이 런던의 하층민들에 대하여 그들이 “길거리를 꼭 메우고, 교회당 안으로 줄줄 스며들어 왔다”고 하거나, “불 같은 진흙의 소용돌이”를 치는 “가장 저급한 찌꺼기의 악마들”(Browning 1978, pp. 172-73)에 이들을 비유하는 대목은 한 극단적인 예이다. 엘리자베드 브라우닝이 본 런던의 하층민들과는 달리 물론 디즈레일리의 공장도시의 군중들은 “부지런한 일벌레”를 연상시키는 보다 건강한 이미지로 제시된다. 그러나 두 경우에 모두 비

유에 의한 대상의 비인간화, 또한 그것이 함축한 계급적 거리는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직접적인 비유를 쓰지 않는 보다 직설적인 묘사라고 해서 더 정확하고 공정한 재현이 되라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유에 의한 감각적 실감조차도 불러내고자 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사무적인 태도의 반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산업자본주의를 옹호했던 앤드루 유어(Andrew Ure)는 『제조학의 철학』(*Philosophy of Manufacture*, 1835)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하이드(Hyde)에 있는 한 방직공장 주변 지역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종업원들이 거처하는 집들은 길거리에 널려 있었는데 석조건물들이었고 널찍널찍했다. 각 집은 적어도 이층으로 아파트 네 개와 작은 뒷마당과 마구간 통로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량된 부엌 벽난로와 보일러, 오븐이 있는 좋은 살림집의 집세는 겨우 일년에 8파운드였고 좋은 연료도 한 톤에 9실링이면 얻을 수 있었다. 난 그 중 몇몇 집들을 들여다보았고 내가 지금까지 본 것들 중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풍요로운 가구들을 갖추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Ure 1969, p. 349)

이어서 유어는 이들 노동자들 집안의 안락함을 몇 개의 가구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일종의 환유법을 사용해서 대상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류의 환유법을 비유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특정 물건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하는 환유법의 전략을 유어는 명백히 택하고 있다. 그래서 한 곳에는 “한 벌의 소파에다 좋은 의자, 말쑥한 마호가니 갑에

들어 있는 …… 벽시계”가 있었고, 또다른 집에서는 “깔끔한 바퀴 기압계”가 발견되었고 심지어 한 집에는 “피아노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앞에 어린 여자 아이가 앉아서 연주하는 법을 배우고 있”기까지 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이 환유법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로 특정 물건이 왜 전체를 필연적으로 대변하는지에 대한 비판 앞에 무력하다. 산업혁명의 직접적인 결과가 보편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는지 아니면, 특히 작가 자신도 인정하듯이 이것이 아주 특별한 예외인지 불분명한 것이다. 또한 전혀 감각화되어 있지 않은 “좋다”는 형용어의 반복이나 “널찍널찍”하고 “풍요롭다” 등의 추상적 표현들 속에 “사실”이 보다 진실되게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산업혁명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재현은, 비유를 통해 대상을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추상화된 형용어에 의존한 딱딱한 사무적 기술을 하는 양극단 사이에 놓여 있다. 유어처럼 특별히 산업혁명의 옹호자로 나서지 않는 한, 대부분이, 허버트 썬스먼(Herbert Sussman)이 지적하듯이, 한편으로는 유기적 세계관을 견지한 입장에서 기계화의 비인간성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기술적 발전과 산업자본주의 놀라운 생산력에 대해서는 경이로움이 섞인 찬탄을 보내는 이중적인 태도였다고 할 수 있다(Sussman 1968, pp. 7-8). 이런 면에서 보면, 영국 급진주의(Radicalism) 전통의 농경적 복고주의 경향을 대표하는 윌리엄 코벳(William Cobbett)의 『시골 승마여행기』(*Rural Rides*, 1821~32)중에 나오는 1830년의 칠강도시 셰필드(Sheffield)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는 가장 일반적인 시각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우리가 셰필드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어두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철용광로들을 그들의 영원한 불길의 끔찍한 찬란함 속에서 볼 수 있었다. 그 중 몇개는 큰길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 용광로들 꼭대기에서 끝없이 끊이쳐 나오는 노란 불길보다 더 장대하고 또한 더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없다.

(Cobbett 1973, p. 217)

코벳의 “끔찍한 찬란함”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산업혁명에 대한 경이감은 써스먼이나 니콜러스 테일러(Nicholas Taylor), 에이사 브릭스(Asa Briggs) 같은 학자들의 지적대로, 하나의 독특한 근대적 숭고미(sublime)의 체험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ssman 1968; Taylor 1973; Briggs 1963).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공장 굴뚝과 반복적이면서 웅장한 공장건물들, 또는 철도, 증기기관, 거대한 창고들, 선박 부두 및 산업자본주의의 여타 다른 물질적 주체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는 인간 주체들을 압도하여 주체의 감지력을 능가하는 하나의 숭고미의 체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자본주의적 기계문명의 진척과 함께 더욱 더 강화되는 미적 체험으로, 예컨대 20세기 초 마리네티(Marinetti)의 격양된 기계찬미 시나 데 시리코(de Chirico)의 초현실주의 회화에서의 길쭉한 굴뚝들의 미학에서뿐만 아니라, 포스모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프레드릭 제머슨(Frederic Jameson)에 의하면 “과학기술적 숭고미(technological sublime)”(Jameson 1991, p. 37)의 미학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숭고미는 엄청난 기계문명의 위세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간 노동자의 극한적 피폐함의 광경에서도

나온다. 산업혁명의 생산물들을 전세계로 실어 나르고 또 거대한 양의 원료를 수입해 들여오는 중심항구인 런던 부두 그 주변에서 매일 일을 따내어 일당으로 생계를 잇는 일용잡직 부두 노동자들의 거처를 방문한 헨리 메이휴(Henry Mayew)는 『런던 노동자와 런던 빈민』(*London Labour and the London Poor*, 1861)에서 또다른 종류의 숭고미를 체험한다.

런던 부두들은 피상적인 관찰자에게는 바로 이 대도시의 부의 초점인 듯 보인다. 기중기들은 육중한 부로 빼겨거린다. 창고들은 말하자면 셀 수 없는 금괴인 셈인 재화들이 보관되어 있다. 위로 아래로 눈으로 가늠할 수 없는 보물 더미가 쌓이고 또 쌓여 있다. 부는 그것들이 건너온 바로 그 바다만큼이나 무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앞에 그 위에 그 밑에 있는 부를 헤아리려 노력하노라면 골치가 아프다. 몇 에이커씩 널려 있는 보물들이 있으니 전세계의 욕구들을 잠재우고도 남을 만큼이라고 혹자는 상상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 어지럽게 흘러넘치는 부의 주위에 몰려 있는 헛간들을 방문해서 똑같이 어지럽게 흘러넘치는 빈곤을 목도해야 한다. 부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장엄미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면, 분명히 그것과 동시에 존재하는 결핍도 그만큼 헤아릴 수 없고 그만큼 장엄하다. 선창과 창고들을 지나쳐서 그 주위를 에워싼 길목과 골목들로 들어가면 정신이 그 곳의 남아도는 부유함에 그랬던 만큼이나 이 곳의 빈궁함에 당황하는 것이다.

(Mayhew 1968, p. 308)

숭고미 또는 장엄미의 속성에 대한 칸트(Immanuel Kant)의 설명에 의하면, 주체의 단순한 감각적 인식을 초월하는 경지가 장엄미로서, 예컨대 하늘이 숭고하다면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

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빈 천정"과도 같은 느낌을 줄 때 그러하고 대양이 숭고하다면 거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 등에 대한 감각이나 오성의 인식이 개입하지 않고 "오직 하늘로만 묶인 투명한 물의 거울"로서 보일 때라고 한다(Kant 110-11). 장엄미 또는 숭고미를 사회적 대상에서 느낀다는 것은 이와 유사하게 그것의 구체적 구조와 상황에 대한 감각과 오성적 인식을 포기하거나 유보하고, 눈앞을 가로막는 압도적 광경의 무한함에만 주목하는 태도라면 이것의 정치적·사회적 함의는 무엇이겠는가? 메이휴가 목도한 궁핍의 장엄미라는 극단적 미적 체험에 잠재되어 있는 사회적 가능성은, 감성이나 오성을 초월하는 이성을 동원하여 주체를 압도하는 대상을 파악하는 것, 즉 사회에 대한 총체적 시각이다. 이것이 눈앞에 놓인 "바다만큼이나 무한한" 대상의 총체적 의미를 감지한다는 점에서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총체적 대응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꼭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을 지향할 이유야 없겠으나 이러한 장엄미의 체험이 사회주의적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문명비판적 담론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나아가 장엄미의 체험이 이 경우 단순히 주체와 주체를 압도하는 객체간의 괴리가 아니라, 대상 자체에 내재해 있는 괴리, 즉 "부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장엄미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면, 분명히 그것과 동시에 존재하는 결핍도 그만큼 헤아릴 수 없고 그만큼 장엄하다"는 모순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다시금 1792년에 토링턴이 우려한 반역의 가능성, 즉 산업혁명의 정치혁명화의 가능성이 산업혁명의 장엄미와 근접한 거리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또다른 가능성은 산업혁명의 기계화에 의해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무력화하고 폐기하므로 노동자들

이 집단적 사회적 주체로 부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산업혁명 시대에 태동한 기계적 인식과 기계적 이상들은 바로 이 후자의 가능성, 즉 기계에 의한 인간의 제어에 대한 염원의 표출을 그 근저에 깔고 있다. 그 염원은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탈산업화와 생산 자동화를 통해서 드디어 전면적으로 노동의 종말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혁명의 기계화에 대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무력화되고